

대학주보가 선정한 새내기 권장도서

□ 어머니

박성리·서민

소설의 주인공 벨리케나 나브르나 블리소바가 걸어간 길. 그것은 러시아의 무지개만 한 광범한 노동자계급 역사가 열려있는 혁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당시



언어로 어떻게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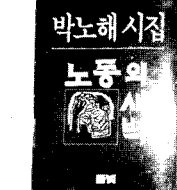


□ 노동의 새벽

박노해·풀빛

“전쟁은 밤을 마치고 난 새벽 쏘인 가슴 위로/차가운 스무를 뚫는다...”

42년의 시창 20여권이 80년대 민주주의로 불려왔고 ‘순무’라는 민요연구회에 의해 국악화되었으며 국악시이기도 하다.



단 현장은 이 시집을 기초로 노래 ‘노동의 새벽’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얼굴없는 시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은 노동 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있어 뿌리깊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근로자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생생히 담고 있다.

□ 미학에 세이

주도·정년사

주도도의 ‘아름다움과 생활’을 중심으로하고 그의 ‘Art and Social Life’, ‘사상·미학사’, ‘중국미술사’ 등을 참고하여 유용한 편찬이 이뤄진 미학의 기초와 고전적에서 나오는 명제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전통적 고사성어 등 다양한



예와 비유하며 그 광란 가치와 뜻을 확인하고, 그것이 서구 미학에서 어떻게 확대 또는 변질되었는가를 강경한 다음 이를 사회적 속 속에서 연결시켜 아름다운 본질, 역사, 기능을 새롭게 정의하며 ‘미중미학’

의 기초개념을 끌어내고 있다.

□ 전태일평전

조영래·홍배계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쳐 죽어간 전태일 열사의 삶을 기록한 글이다.



열사의 문신은 자본의 노예, 기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기도 하다.

□ 빛

백남홍·심림타

복합의 소설들이 우리에게 소개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소설들—예를 들면 ‘민중의 바다’와 같은데서 보지 않는 주제사상의 확충(?)이 아닌 북녘의 평범한 근로자의 삶을 애정어



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두 남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결혼 후 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태백산맥

조정래·한일사



역사항쟁에서부터 53년 휴전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온통 무대까지 살아간 이땅의 민중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이 선택한 역사의 행로. 한 노인의 독백은 이 소설의 주제를 잘 말해준다.

“지금 세대는 패하고 양심가들은 몰살당했지만 세월이 지나 다음 세대가 되면 다시 그 시대의 양심에 자라난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양심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철학에세이

조진호·동네

‘철학에세이’는 진정한 철학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철학이 외면당하고 있는 지적 풍토 속에서 철학을 우리사회와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학에서 찾아지는 이중성의 예시에는 비록 가깝지만 더는 사



색적인 활동을 민중으로써 새내기들에게 철학이라는 숲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경이다가 되어줄 것이다.

□ 심학인사와 수상과피

대학주보사 총서

‘오늘의 한국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대학주보가 765호(1982년 9월 27일)부터 20차례에 걸쳐 연재한 특집시리즈물이다. 이 기획물은 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지적인 역학, 한국의 정치현실과 나아갈 방향, 한국사회의 자유와 통화를 위한 노력, 종교와 주체적 문화의 정립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날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대한 위상을 밝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자 한다.



김재홍

(문리대교수·국문학)

주지하다시피 만해 한운은 전국적 독립투사이자 민족운동가로서, 시집 ‘님의 침묵’과 소설 ‘독종’의 기발한 주인공으로서, 또한 높은 경지의 예술가로서 실존적인 종교인으로서 이방 근대사에 있어 최단위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그는 국권상실의 시대에 주권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과 민족적 자



김언중

(외대교수·중문학)

우리의 새내기들에게 ‘莊子’를 권한다. 지금은 莊周는 기원전 370년 경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의 철학사상을 담은 ‘莊子’는 적어도 23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책이다. ‘莊子’는 유가사상의 근간인 ‘論語’와 함께 중국 인생철학의 표리를 이루면서 길고 긴 역사의 갖가지 시련을 이기고 이제는 여러나라 지식인의 사기에 꽃피고 있는 현실상무한 세계적이 고전이 되었다. ‘莊子’는 천리마부터 현실의 풍정에 찢은 세속 사람들에게 초탈의

“님의 침묵”—만해 한운은

민족의 시집 사랑의 시집

존신의 고요에 침묵을 기울였다. 또한 외래문화의 부분적인 유입에서 방황감정을 상실한 이상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바로잡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선구적 지성이자 실천적 지성이자였다.

실존과 사랑과 지조를 일치하고 그것을 민족적 현실에 뿌리내리게 한 공적은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내가 추천하는 시집 ‘님의 침묵’은 그러한 만해의 심정의지와 사상 및 문체정신이 구체적

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만해의 가열한 독립투쟁과 민족운동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되었으며 사랑의 철학·평화의 사상으로서 고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본이나 지평이란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궁극과 더 높은 지평을 내수원 원의 광활한 모습으로 상응되는 데서 그 이념적 모습이 구현될 수 있다. 70~80년대 격동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더 큰 사랑과 평화의 철학이 추구되어야 할 시대이다. 민족의 현실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커다란 정서적 울림과 깨달음의 교훈을 줄 것이 분명하다.

“장자(莊子)”—장주(莊周)

힘차게 날아가는 대붕 되길

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복록 길은 검은 물결처럼 파도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 그 이름은 곤(鯁)이다. 곤의 크기는 몇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곤이 변하여 파가 되는데 그 이름은 파(鰲)이다. 파는 등어리만 하여도 몇천리나 된다. 힘차게 날갯짓을 하여 하늘을 날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을 가리운 구름장도 같고 파도도 일렁이는 때가 되면 (남쪽 끝의 바다(南溟)로 날아 가는데 그곳은 바로 새생애의 시작을 뜻한 천지(天)이다.)

이렇게 해일처럼 힘찬 기세로 시작되는 장자의 도교적 변설은, 이 세상의 이념과 욕망과 그릇, 나와 나 아닌 일체의 대상, 이것과 저것, 양명과 오오, 삶과 죽음 등등의 상대적인 개념들의 실체와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본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환 물음을 거둬들이 던지고 있다. 대학생, 특히 새내기들은 이제 이러한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통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커다란 숙제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다. ‘장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색의 문을 열어주어 있어 열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비유하면, 폭풍처럼 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힘겨워 바닷길의 멀리 보다 더 작아 작은 지어(稚雅)(사실 곤의 본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 얼마나 시나브로 비유(比)처럼 바람처럼 부는 대로 물결처럼 차는 대로 정지(止)하는 대로 날 수 있는가. 구름장 같은 날개를 지어 구름의 상층을 날아 지면과 가까운 대붕(大鵬)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새내기들에게는 비야호로 그런 힘이 있다.

문화원 탐방 ‘국악의 해’ 다양한 행사로 대중화

국립국악원

사업계획을 크게 잡고 있으나 올해는 조금 절제적인 듯 하다. 국악진흥회의 박윤(홍보부)씨는 “국악원은 단지 공연만을 하는

해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여러 장르를 제후하지 않고 소개하고 감상할 수 있게끔 개선된 ‘토요산악국악공연’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열린



신조환주 신조는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으로 편성된다

곳이 아닙니다. 보존하고 보급·전수... 더 나아가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곳이지요. 우리 현실상의 국악원의 역할은 공연·연구·교육이란 세가지 기능을 들고 있어요.”

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국립원 내소극장에서 공연이 있으며 학생은 1천5백원에 감상할 수 있다. 3월 중 ‘포그로’로 12일—해금산조, 박중, 가야금, 방중, 판소리(수궁가)와, 19일—거문고 산조, 피리독

주(상현조), 궁중음악(장흥물지곡)과, 26일—무용(춘앵전), (산갈무), 판소리(홍부)가 등이다.

일반 연주회는 오는 17·22·25·29일 늦은 7시30분에 각각 신원국악연주회·민족음악연구회·경기연주회·전통음악연구회 (여민학(興民學)전장연구)·황금원 전통무예를 발표회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하·동계 방학기간에 학생을 위한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매일 첫째 토요일 (한달에 한회) 늦은 2시부터 소극장에서 ‘우리 음악감상교실’이 마련된다. 4월2일—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 (강명관(명화배우, 판소리 이수자) 등 직접 시범을 보이게 한다)에 국악 수감생들과 함께 연습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585-0155)

(이유경 기자)



빠르게 변화한다, 신세대 패션리듬—심플리트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이 감각적이다.

고급스럽고, 무늬 없이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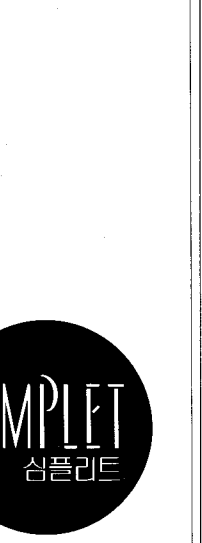
침묵의 물결과 순수 본연에 가까이 있다.

심플리트 7월에는 신세대를 만다.



영에이지

YOUNG AGE



SIMPLET
심플리트